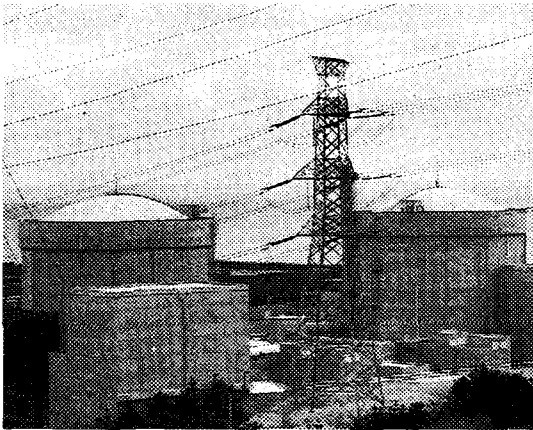


蔚珍原子力發電所준공 原電比重 36%로 증가

發電設備容量 190萬KW(95萬KW 2基)의 蔚珍原子力發電所 1, 2호기 준공식이 지난 2월 27日 경북 蔚珍郡 北面 富邱里 현지에서 李鳳瑞동자부장관과 安秉華한전사장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安秉華 韓電社長은 式辭를 통하여 올진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 준공으로 우리나라 電力수급에 安定을 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증가되는 에너지의 供給을 위하여 原子力 개발에 韓國電力은 그 책무를 슬기롭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蔚珍原電은 加壓輕水爐型으로 지난 1981年 1월에 착공하여 1989年 9월에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2호기는 '89年 9월에 가동하였는데 총공사비 2兆1,192億 원(내자 1兆1,446億 원, 외자 11億8,824萬달러)와 연인원 930萬名이 투입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9기의 原電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原電設備容量은 762萬KW로 증가 총발전설비용량의 36.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蔚珍原電 건설에는 종전의 일괄도급방식과는 달리 사업자주도방식을 택해 공사발주와 건설감리 시운전등 대부분의 공정을 韓電주도로 시행하여 國産化率을 기자재공급부문에서 40%, 원자로 등 주설비의 설계부문에서는 46%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란 Bushehr 원전복구에 韓技(株)와 참여가능성 협의

韓國電力技術(株)은 지난 1월 30일 내한한 이란 원자력위원회의 MANSOVR HAZI-AZIM 부위원장 일행과 Bushehr 원전 1호기의 공사재개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을 협의하였다.

이란 Bushehr 원전 1호기는 서독의 KWU가 턴키방식으로 계약, 70~80%의 공정상태에서 '80년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건설중단된 상태에 있는 발전소인데, 이번 이란 원자력위원회의 방문은 Bushehr 원전공사재개에 韓技의 참여를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韓技에서는 참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기로 하고, 2월 하순경 현장조사팀을 파견하여 정확한 실태파악후에 참여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磁氣浮上열차” '93년에 첫선 機械研에서 常傳導式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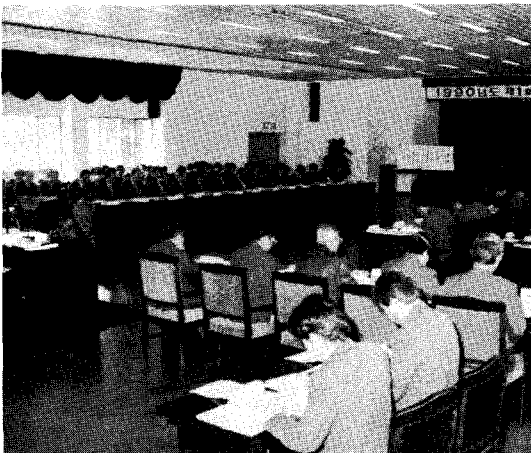
'93년 忠南 大德에서 열리는 國際貿易博覽會때 우리과학기술진이 개발한 磁氣浮上車형 高架列車가 선보이게 된다. 과학기술처와 무역박람회측은 앞으로 3년동안 52억원을 들여 시속 30~40Km로 달리는 磁氣浮上型 소형열차를 독자적으로 개발, 무역박람회가 열리는 大德 도룡동 전시본부 2.4 Km의 순환구간을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 자기부상열차는 韓國機械研究所 朴讚一실장(기술지원실)을 중심으로 産·學·研이 공동참여, 올해중 10분의 1 크기의 축소모형을 제작하고 '92년까지 실물제작을 완료해 박람회때 운행하게 된다. 이 열차는 바퀴가 달린 在來式 열차와는 달리 磁石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 열차를 레일위 10mm정도 띄워 달리는 常傳導방식의 자기부상형 열차다. 세계적으로 아직 實用化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기부상열차는 자석의 吸引力을 이용한 常傳導방식과 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한 超傳導방식의 두가지가 있지만 고온 초전도체의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어 常傳導방식의 자기부상열차가 먼저 實用化될 것으로 보인다.

韓國水資源公社 '90 제1회 전국확대간부회의

'90년도 제1회 전국확대간부회의가 1월 22일 옹비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89년도 경영성과 분석 및 '90년도 사업추진계획, 앞서가는 水公을 위한 MIND-90운동 실시계획, '89년 감사실적 및 '90년 자체감사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李太教社長은 훈시를 통해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개발, 원가절감, 성과중심의 관리체제 정립 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체 실시에 따른 대책강구를 당부했다.



脫黃시설등 확충 京仁에너지 許可신청

京仁에너지(株)는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을 각각 日産 3만배럴 규모로 확대 건설키로 하고 2월 7일 동자부에 사업계획 허가변경을 신청했다.

京仁에너지는 당초 '91년까지 日産 1만배럴의 중질유 분해시설 및 日産 2만배럴의 중질유 탈황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세워 지난 '87년 당국의 허가를 받았었다.

중질유분해시설 및 탈황시설 건설규모의 확대로 투자비는 2천2백30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京仁에너지는 오는 '93년까지 이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京仁에너지의 건설규모 확충계획에 따라 오는 '93년까지 정유5社의 중질유분해 시설은 日産 14만4천배럴, 중질유탈황시설은 12만배럴로 규모가 커지게 됐다.

현재 가동중인 중질유분해시설은 日産 3만4천배럴 규모인 極東精油의 시설뿐이다.

京仁에너지의 설비확충계획으로 極東을 제외한 油公, 湖油, 雙龍등 정유4社의 중질유분해시설 및 탈황시설의 규모는 각각 3만배럴로 모두 같아지게 됐다.

에너지-環境政策 세미나 개최 韓國科學技術院에서

韓國科學技術院(KAIST)은 國際原子力機構(IAEA)와의 공동主管下에 韓國電力公社 후원으로 지난 3월 6일 韓電 별관(중강당)에서 “에너지와 環境-’90년대 에너지 및 環境部門 戰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主題 發表에 앞서 韓國電力公社 安秉華 사장(韓國에너지協議會 회장)의 환영사, 動力資源部 張相鉉 차관의 축사가 있었으며, 李炳暉 교수(KAIST)와 W. D. Guthrie박사(IAEA)는 각각 ‘에너지와 環境問題에 관한 國內外 情勢’, ‘國際的 環境問題와 原子力の 役割’이라는 論題의 基調發表를 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環境일반, 에너지와 環境, 원자력과 環境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차례로 進行되었으며, 각각 3명씩의 主題發表와 에너지 및 環境부문의 戰略樹立에 直間接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 政策立案 부서 및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세미나의 내용은 최근 環境問題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焦眉의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環境保全에 대한 認識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인류의 문명생활 營爲를 위해 必要不可缺한 에너지의 사용은 環境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미래의 에너지開發 利用은 環境保存과 調和를 이루며 行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集約되었다.

韓國電氣 100年史 發刊 電力事業의 歷史 集大成

韓國電氣 100週年 紀念事業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역사를 집대성한 韓國電氣 100年史를 발간하였다.

1987年 4月부터 시작해서 2年7個月에 걸친 편찬 작업 끝에 지난해 연말에 발간된 韓國電氣100年史는 菊倍版 上下권과 화보판 3권으로된 大著이다.

電氣100年의 歷史를 총정리 보완하여 電氣1世紀에 걸쳐 초기 전력사업의 미확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 보완하는 한편 일제시대, 해방후 전기사업, 전기3사통합, 공사발족 등에 관하여 資料를 정리 수록하였다.

가스 全國配管網 구성 韓國가스公社 1996年에 完工

韓國가스公社는 天然가스공급을 위한 全國 主配管網을 오는 199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수도권 지역 배관망은 '93년까지 모두 마치고 하였다.

지난 2月 6日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내 LNG (液化天然가스)수요는 이와같은 全國供給事業 확대에 따라 오는 1996年 450萬톤, 2001년에는 650萬톤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스公社는 199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LNG 150萬톤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부터 단기계약에 의해 들여오고 1995年이후 추가 소요 물량을 이들 국가 및 알래스카 중에서 장기계약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가스公社는 또한 平澤引受基地 증설과 제2引受基地를 1996年말까지 준공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3月까지 끝내고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LNG에서 나오는 冷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기액화분리공장을 건설 오는 6月부터 액체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을 생산하는 한편 冷熱發電事業을 추진해 자체 소요 전력을 충당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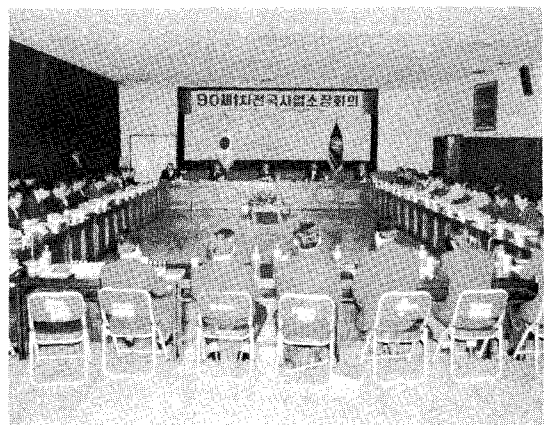
韓國電力補修株式會社 '90 1차 사업소장회의 開催

韓國電力補修(株)의 '90년 제1차 사업소장회의가 2월 9~10 양일간 본사 강당에서 李 教璿 社長을 비롯한 정 상조 감사, 정 태봉 부사장, 노 태일 관리본부장, 한 달수 사업본부장 등 임원·경영간부진과 본사 부처장급 이상 간부, 그리고 전국 29개 1차 사업소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開催됐다.

올해 韓電補修(株)가 나아갈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 그리고 본사 및 사업소의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를 위해 열린 회의는 먼저 李 教璿 社長の 훈시에 이어 본사 각 부서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및 지시사항 전달, 경제교육,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李 教璿 社長은 훈시를 통해 “현재 우리 주변의 기업환경은 우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과 함께 종래와는 다른 경영체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의식구조문제, 책임보수문제, 보수품질 향상 및 기술축적문제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취약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음을 볼때 여기에 모인 사업소장과 본사 간부들의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教璿 社長은 따라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意識改革, 둘째 安全性 確保 (방사선 및 산업안전), 셋째 人材養成, 넷째 技術向上, 다섯째 制度改善이라고 강조하고 이 모든것은 궁극적으로 발전설비의 무고장 보수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韓·蘇 科學技術協力 새章열려 科學財團·KIST와 協定체결

우리나라와 蘇聯간의 과학기술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프롤로프 蘇聯과학원부원장은 지난 2월 1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13일에는 韓國科學財團을 방문,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한국과학재단 鄭根謨이사장과 프롤로프부원장간에 체결된 '韓蘇간 과학기술협력 및 과학자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의정서'는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협력 장려,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공동위원회는 양 기관이 지명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年1회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교대로 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협력사업을 종합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제1회 임부서장 조찬강연회 개최

한국전력기술(주)은 지난 2월 9일 오전 7시 30분 리베라호텔 15층에서 이관박사(한국가스공사 이사장/21세기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신기조 사장을 비롯한 회시간부 60여명의 참석하에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처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이관 박사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인류 문명의 발전을 다각적 시각에서 관찰하고, 이에 따른 상호연관성의 포착과 다양성의 포용, 공간·시간적 시야의 확대 그리고 역사적 흐름의 정확한 예측에서 과학기술의 발전도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韓技는 간부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저명인사들을 초청, 자주 조찬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에너지管理公團에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설명회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설명회가 2월 23일 에너지管理公團 대강의실에서 관련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자리에서는 에너지管理公團이 지난해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기술개발이 완료된 「열교환 환풍기 기술개발」등 4개과제 기술개발 결과가 발표됐다.

「열교환 환풍기 기술개발」은 청우기공과 國民大가 개발수행자로 냉난방환기손실회수용 열교환장치를 개발, 상용건물과 주택에 그 기대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評價됐다.

밸런싱 밸브 및 단구역배관망을 이용한 난방배관기술을 개발한 「공동주택 열공급기술」은 중앙설비와 고려대팀이 수행, 신축고층아파트 설계시공에 적합하며, 우진계기가 수행한 「가열설비 연소제어」는 가열로·용해로·소성로등 가열설비의 배가스 산소측정에 의한 컴퓨터제어시스템 개발로 요업·금속업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유압실린더 구동장치」는 크레인등 유압제어기기 보유업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이러한 실용화 技術開發事業은 지난 '86년에 시작돼 산업체의 각종 애로기술을 단기간에 개발, 이같은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에 普及해 오고 있다.



韓國電力技術 프랑스 SGN사와 Kick-off Meeting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발주하고 韓國電力技術(株)가 주관하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ISFSF) 개념설계 용역의 외국 기술제공회사인 프랑스 SGN (Société Générale Pour les Techniques Nouvelles) 과의 Kick-off Meeting이 지난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사흘간 韓國電力技術(株)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용역은 '90. 1월부터 12개월간 수행되는데 핵연료 중간시설은 폐기물의 소외 저장시설로는 국내 최초로 설계·건설되는 시설물로서 향후 기본·상세설계를 계속할 예정으로 있다.

터키 크롬鑛 공동개발 油公·鑛振公·鮮京

(株)油公을 대표로 한 국내기업들이 터키의 오하넬리 크롬광산에 공동 진출한다.

최근 動資部에 따르면 (株)油公, (株)鮮京, 大韓鑛業振興公社가 이 지역에 공동으로 합작개발사업 허가를 신청, 총1,700만달러(지분을 50%, 유공 37.5%, 선경 7.5%, 광진공 5%)를 투자, 이 광산의 소유자인 에게메탈사와 광산을 개발하는 한편 스테인리스강 제조원료인 페로크롬(Fe-Cr)제련시설을 마련한다.

深夜電力保管 活用 科技研에서 熱貯藏裝置 개발

韓國科學技術研究院의 朴元勳·洪性安 박사팀은 深夜의 값싼 剩餘電力을 熱에너지로 바꿔 보관했다가 주간의 冷·暖房 設備, 補助發電施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熱貯藏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熱貯藏시스템은 深夜의 값싼 剩餘電力을 사용, 물질을 相變化시켜 熱에너지를 보관했다가 재활용하는 것이다.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低溫蓄熱

시스템은 熱을 보존하는 축열재로 황화염을 사용했으며 여기에 붕사를 첨가, 과냉각 현상방지와 고흡수성 고분자를 첨가, 황분리 현상을 예방함으로써 1만번 이상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저온축열시스템은 섭씨 30도 정도로 열을 보존, 난방에 활용된다.

冷蓄熱시스템은 축열재로 물과 고흡수성 고분자를 사용, 고흡수성 고분자가 섭씨 0도 부근에서 정확하게 물이 얼도록 과냉각현상을 방지해주며 이를 이용, 냉방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高溫축열시스템은 축열재로 탄산염을 사용, 섭씨 400도 부근에서 相變化가 일어나므로 고온을 보관, 방출할 수 있어 揚水발전소 등의 축열식 보조발전설비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장기간 반복사용이 가능한 축열재의 개발에 따른 熱貯藏시스템의 실용화로 값싼 심야전력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浦鐵, 光陽 4期 착공 第5冷延工場 신설

浦項製鐵에서 지난 1월 9일 알려진바에 의하면 올해 350만톤 규모의 光陽4期 건설 등에 총2조1,230억원을 투자, 설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浦鐵이 확정된 '90년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光陽3期 설비의 조기 준공과 신·증설 설비의 정상조업을 통해 조강 1,600만톤 생산체제 구축을 확립하고 4월중에 光陽4期 열연공장을 착공기로 했다. 浦鐵은 10월에 6,467억원을 투입, 5냉연공장을 신설하고 6월에는 1,861억원을 투자해 浦項 1열연공장의 합리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光陽3期 설비확장사업이 연말까지 끝나게 되며,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이 7월에 완공되고 浦項港 원료부두 등도 올해에 마무리된다.

浦鐵은 이와함께 폐수정화설비 등 公害防止設備投資와 설비자동화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급강생산비중을 지난해 17.7% 수준에서 22%까지 끌어올리는 등 高附加價值製品生産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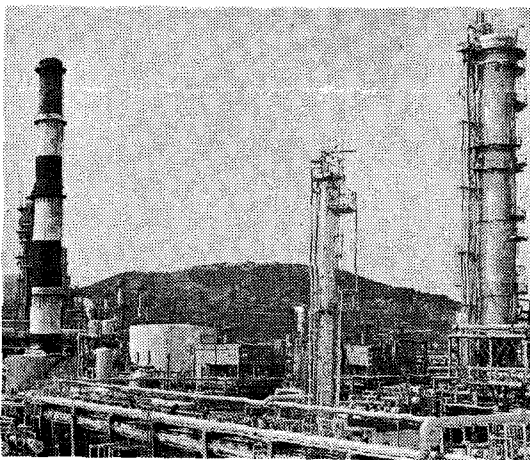
印尼 熱併合發電設備 수주 現代엔지니어링에서

現代엔지니어링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살립그룹과 (株) 味元이 합작투자자로 設立하는 람퐁지역 조미료공장의 열병합발전설비를 수주했다. 지난 1월 17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설계 기자재 공급, 건축시운전을 포함한 일괄도급형식으로 現代엔지니어링은 이중 54억원에 달하는 設計 및 일부기자재 공급을 맡는다.

油公, 潤滑油 精製施設 건설 하루 4,000배럴 生産규모

動資部는 (株) 油公이 신청한 日産 4,000배럴 규모의 윤활유정제업을 지난 1월 정식 許可했다. 이에따라 (株) 油公은 오는 '91년 10월까지 총공사비 250億원을 투입하여 仁川市 中區 항동 인천저유소 내에 日産 4,000배럴 규모의 潤滑油 精製施設을 건설키로하는 한편 同시설이 준공되는대로 현재의 울산공장내에 가동중인 하루 2,000배럴 규모의 윤활유 정제시설은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한편 動資部가 하루 생산규모 2,000배럴이 넘는 윤활유정제업을 허가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이미 가동중인 윤활유정제업 신고업체는 日産 2,000배럴 이하 규모로 총 65개업체에서 하루 15,900배럴의 정제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將軍鑛山 本格개발 鑛振公 국내최대 鉛·亞鉛鑛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88년말 발견된 매장량 7백30만톤규모의 국내최대 鉛·亞鉛鑛인 將軍鑛山(경북 봉화군 소재)을 금년부터 본격 개발할 방침이다.

장군광산은 광진공이 그동안 일반광지원 육성계획에 의거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한 국내최대규모의 고품위광체의 광산으로 오는 '94년까지 1백10억원을 투자, 연간 鉛은 4만톤, 亞鉛은 5만3천톤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는 침체상태에 놓여있는 광업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현재, 연간 3만톤 규모의 현대식 채광설비와 선광장 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단계에 들어가 연간 36만톤 생산량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반면 지금 진행중인 40억 규모의 1기 시설공사에 이어 '91년에 착공할 2기공사는 생산규모를 60만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력의존도를 탈피한 기계화로 생산성을 유럽의 선진국 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韓國電氣安全公社 新社屋 9월경 完工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5월 22일 착공한 신사옥공사가 9월말경 完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초 입주할 앞두고 있는 新社屋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46-2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지 2,147.9㎡에 연건평 7,214.63㎡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설된다.

한편 韓國電氣安全公社는 지난해말 확정된 전기안전공사법의 개정과 신사옥이전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電氣安全專門公社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대내외적인 입지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